

월요광장



심옥숙  
인문지행 대표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가 메타포, 즉 은유다. 어떤 것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신에 '한 사물을 다른 사물과 비교하면서 말하는 방법'이다.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예를 들면 '나에게 너는 언제나 오월'과 같은 것이다. 메타포가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며, 그 힘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소설이 '네루다의 우편배달부' (1985)다. 네루다는 칠레의 국민 시인이자 노벨문학상 수상자로서, "모든 언어권을 통틀어 20세기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고 평가받는 바로 그 파블로 네루다(1904-1973)다. 작품의 원제는 '불타는 인내'였는데, 네루다가 1971년 노벨문학상 수상 연설에서 "여명이 밝아올 때 불타는 인내로 무장하고 우리는 찬란한 도시들로 임성하리라"라는 행보의 시 일부를 인용한 것에서 나왔다.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는 당시에 무명이던 안토니오 스킨카메타라는 작가가 썼는데, 이 작가는 시인 네루다보다 36년이 젊다. 시인 네루다는 젊은 작가를 기꺼이 만났고, 스킨카메타는 사회적 지위와 나이 차이와

평등 없는 친밀성이 아닌, 삶의 메타포 배우기

명성에도 개방적이고 인간적인 유머가 넘치는 시인에게 무한한 존경심을 가졌다. 작품 속 네루다는 실제와 달리 평생 칠레를 위해 싸우고 수많은 고난을 겪어낸 투사의 모습이 아니다. 작가는 소설을 통해서 한 시인에 대한 국민적 사랑과 존경심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뛰어난 유머와 감각적 표현으로 보여준다. 맹목적 찬양과 숭배가 아니고, 조국과 삶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 행위와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보여준다. 유명한 시인이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주인공은 작은 어촌 마을 청년이다. 소설은 청년이 하루하루 반동대가 우연히 시인의 전담 우편배달부가 되면서 시작된다. 시인에 대한 존경심으로 제대로 말도 못 건네던 청년은 어느 날 메타포가 무엇이라고 묻고 차츰 서로 간에 깊은 우정을 쌓아간다. 배운 것도 없고, 특별히 원하는 것도 없던 청년은 메타포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알게 되면서 삶의 한가운데에서 비로소 살기 시작한다. 삶에 대한 메타포를 이해하고 사용하면서 불가능해 보이던 사랑을 정취하고 미래에 대한 의지와 책임을 깨닫는다. 시인 네루다의 진정한 위대함은 아는 것도, 가진 것도, 미래도 없던 청년과 좋은 친구가 되고, '생각 없던 청년'이 이제 삶을 사랑하고 세상의 고통을 나눌 만큼 성장하는 과정에 동행하는 것이 아닐까. 이야기 속 청년은 보통의 칠레 사람이다. 이런 의미에서 청년이 성장하는 모습은 곧 작가가 시인의 불타는 인내와 평등한 친밀성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칠레에 대한 믿음과 평등, 사랑의 메타포다.

상호적 개방과 존중 위에서만 우정과 사랑은 건강하게 자란다. 이 두 가지의 상호성이 제거된 친밀한 태도를 영국 작가 조지 오웰은 '평등 없는 친밀성'이라고 말한다. 높은 지위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대중적 소탈함과 호탕함을 거침없이 내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조건은 서로가 대등하고 평등하게 생각하는 상호성이다. 더없이 친밀하고 거리감 없는 모습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지배적인 '갑'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웰이 말하는 평등 없는 친밀성이다. 이런 친밀성은 "친밀할 시 관계의 주된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의 본질을 은폐하는 도구"로 쓰인다는 것이다. "나는 친밀함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너는 감히 그럴 수 없다"는 의미다. 서로 평등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표현된 친밀함은 관계의 목적과 의도를 감추기 위한 위장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친밀성은 늘 일방적이며, 때로는 감사하기 이룰 데가 없는 '은혜'가 된다. 오웰은 지배자의 대리인으로서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평등 없는 친밀성은 지배 욕망이 감춰진 것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교묘한 지배방식이라고 고발한다. 절대적 우월감에 뿌리를 둔 평등 없는 친밀성이 몸에 밴 사람들에게 평등의 가치는 거짓해야 책 몇 권으로 학습된 화려하지만, 허명의 단어일 뿐이다. 심장 뛰는 삶과 일상의 언어로 시를 쓴 네루다의 시 한 구절이다. "너(책)를 닫을 때, 나는 삶을 연다 / 나는 책을 엮지 오지 않았다 / 나는 삶에서 삶을 배웠다"

수필의 향기



김향남  
수필가

빠꾸기는 늘 멀리에서 온다. 가까이 있어도 어쩔지 멀찍이서 오는 듯 아련하게 들린다. 산이 코앞에 있는 데도 빠꾸기는 왜 이 산의 새가 아니라 저 산의 새처럼 느껴지는 걸까. 자려고 누웠는데 빠꾸기 소리가 들린다. 한밤중에 무슨 소릴까 싶지만 분명히 빠꾸기 울음이다. 짹짹 빠꾸... 애조 띤 소리가 자꾸 마음을 헤집는다. 저 빠꾸기는 왜 잠도 자지 않는 걸까. 새벽에도 울고 한낮에도 울고... 시도 때도 없이 오는 것이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것이 아닐까? 공연하 빠꾸기 우는 사연이 궁금하다. 빠꾸기는 늘 혼자서 온다. 고독한 단독자처럼 혼자서 구슬프게 온다. 물론 이산 저산 빠꾸기가 서로 화답하듯 주고받을 때도 있다. 그럴 때도 빠꾸기는 홀로 울었다. 짹짹 빠꾸...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소리가 어찌나 애달픈지 사람들도 그냥 흘려들었음 리 없을 성싶다.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적잖은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었다. 시어머니 구박에 죽은 며느리의 원혼이고, 계모에게 맞아 죽은 원통한 딸의 낋이고, 하늘나라로 되돌아가지 못한 나무꾼의 애처로운 사연이고... 모두 원통하게 죽은 사람들의 한 맺힌 소리라는 이야기였

빠꾸기

다. 그러나 한의 소리, 슬픔과 원망의 소리라고 해도 듣고 있노라면 어느새 싱잉볼 음악처럼 고요해진다. 아련함과 슬픔, 고요한 여백이 생긴다. 한때, 빠꾸기에게는 늘 오명이 따른다. 암체니 강파니 사기꾼이니 하는 부정적인 이름들. 한마디로 '나쁜 놈'이라는 것인데, 그건 바로 자기 동지에 알을 낳는 게 아니라 남의 동지에 알을 낳는 탁란의 습성 때문이라는 것. 대다수 새가 동지를 틀어 새끼를 기르는 일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데 비해, 빠꾸기는 개개비나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의 동지에 몰래 알을 낳는 암체 짓을 서슴지 않는다. 게다가 일찍 부화한 빠꾸기 새끼는 숙주 새가 낳은 알을 동지 밖으로 밀어 아래로 떨어뜨려 버린다. 그리하여 숙주 새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고. 그 새는 제 새끼를 모두 죽인, 저보다 큰 빠꾸기 새끼를 정성껏 돌보게 되는데... 성장한 빠꾸기는 훌쩍 다른 곳으로 떠나버린다. 황당하고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렇다고 날아가는 빠꾸기를 잡아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허, 참! 빠꾸기의 모든 것을 파헤칠 땐 나는 손에 쥔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다. 한밤중에 굳이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포노사피엔스, 스마트폰이 나의 선생이다. 잠은 안 오고 하릴없이 선생에게나 기댄다. 여하튼, 빠꾸기는 왜 그런 '짓'을 일삼는 걸까? 빠꾸기에게도 흑시 피지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걸까? 하기가 무엇이란 한쪽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일, 당연히 빠꾸기의 사정도 들여보아야겠지. 탁란의 시작은 우선 동지를 만들고 새끼를 키우는 것보다 남에게 맡기는 것이 생존에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다. 부리가 날카롭고 몸이 평평한 빠꾸기는 가슴의 가로줄 무늬와 다리를 덮은 털이 맹금류와 닮았지만, 비행 실력은 비교할 바가 못 된다. 그뿐 아니라 다리 근육도 발달하지 않아 동지를 만들기 어렵고 알을 품는 능력도 결핍되어 있다. 그러나 제한적으로 동지를 틀어 새끼를 기른다는 것은 능력 밖의 일이다. 게다가 빠꾸기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철새'가 아닌가. 그렇지만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르는 것은 지상의 과제! 그건 빠꾸기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문제일 뿐. 이윽고 그는 꾀를 짜낸다. 저기 저 뱀새(붉은머리오목눈이) 동지가 어떨까? 어리 살피고 저리 살핀 빠꾸기가 드디어 뱀새 동지에 슬쩍 제 알을 넣고선 멀찌감치 날아간다. 순진한 뱀새, 뭔가 이상한 낱새를 느끼지만 이내 의심을 거두고서 온 정성으로 알을 품고 새끼를 기른다. 빠꾸기는 드디어 미션 성공! 시험 삼아 해본 것이 외외의 성공을 거두었고, 그 일을 되풀이하다 보니 이제는 직접 새끼를 기를 수 없는 특이한 구조로 진화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빠꾸기는 그 생태적 특성상 탁란을 할 수밖에 없는 슬픈 새인가? 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이어 가야 하는 존재하는 것들의 슬픈 자화상인가? 그리하여 저 울음은 남의 동지에 알을 낳은 빠꾸기의 예타는 모정인가? 불난고 초조와 근심이 서린 어쩔 수 없는 울음인가? 혹은 험한 세상에 자식을 내보낸 모든 어미의 울음을 대신한 것인가? 두서없는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울음이다.

기고



고보혜  
광주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정책실장

지난 1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 이어 18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시행됐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보호 대상 확대에 있다.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합의를 한다 할지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고,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넓어졌다. 또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토킹방지법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해 상담과 치료, 법률 구조, 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의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신체적으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

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 '은밀히 다가서다, 몰래 추적하다(stalk)'에서 파생되어 명사화된 스토킹은 사회적 의미로 '성가시거나 무서운 방법으로 4~5년 동안 누군가를 따라다니고 지켜보는 범죄'라 정의된다. 1960년대부터 유명인들을 따라다니며 노골적으로 사진을 찍는 파파라치 기자들의 행위로 알려지다가 1990년대에 들어 지금의 의미로 이해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기존의 여성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스토킹 관련법이 보완되면서 경찰의 대응력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 시민들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인식수준은 낮은 상태이다. 광주시는 최근 변화하는 양상의 여성폭력에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광주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와 함께 '광주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지난 5월 시민 남녀 1천여명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스토킹 인식 및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스토킹을 범죄로 보지 않는 낮은 인식 수준, 가해자와 피해자의 큰 인식 차이, 친밀한 이성관계에서만 아

니라 일상생활 속 학교나 직장,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과거 물리적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행위에서 나아가 최근에는 전화, 메신저, 문자와 같은 온라인 스토킹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 보호 업무는 경찰과 검찰, 가정폭력, 성폭력 등 센터폭력 지원체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과거 지난한 여성인권 투쟁 과정에서 만들어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센터폭력 관련 법령에 근거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서비스는 설계된 지 20여년이 지났고, 그동안 피해자의 니즈나 센터폭력의 양상이 많이 변화되었다. 실제로 학교나 직장 생활 등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피해자 입장에서 쉼터와 같은 보호시설의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행위 중단과 피해자 자신과 가족의 신변보호 두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춰 지원서비스 및 보호 방안을 원하고 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가 주로 젠더에 기반한 문제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지만 젠더폭력의 범주로 볼 수 없는 문제에 대한 지원의 한계도 존재한다. 따라서 광주시는 스토킹범죄의 특성별로 지원기관의 역할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예산 및 인력의 규모를 현실 가능한 선에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社說

땅값 상승 노린 도심 산단 투기 방지책 세워야

광주 도심의 급격한 팽창으로 외곽에 자리했던 산업단지들이 도심에 편입되면서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성 투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에는 15개 산업단지가 조성됐거나 만들어질 예정이다. 광주는 특히 도심 외곽에 산단이 몰려 있는 타 지역과 달리 소촌산단, 소촌농공단지, 하남산단, 점단산단 1·2단지, 본촌산단 등 상당수가 시민 생활권 내에 있거나 인접해 있는 '도심 속산단'이다. 그동안 도시 개발은 구도심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외곽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도심이 빠르게 팽창하면서 기존 산단들이 도심에 편입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산단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세 차이 등을 노린 투기성 매매 행태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소촌농공단지 땅 용도 변경 건이 대표적이다. 박 전 시장의 아들은 4500여㎡의 제조

시설(공장 용지)을 19억 5000여만 원에 구입한 뒤 광주시와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지원 시설로 용도 변경했다. 이후 해당 토지의 감정가는 41억 5000만 원으로 뛰어 땅값 상승분만 22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한데 용지 구입 과정에서 기본적인 취득·매입 관련 절차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데다 광주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소촌산단, 소촌농공단지, 하남산단, 점단산단 1·2단지, 본촌산단 등 상당수가 시민 생활권 내에 있거나 인접해 있는 '도심 속산단'이다. 그동안 도시 개발은 구도심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외곽 중심으로 이뤄졌는데 도심이 빠르게 팽창하면서 기존 산단들이 도심에 편입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산단의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부동산 시세 차이 등을 노린 투기성 매매 행태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박광태 전 광주시장 아들 소유의 소촌농공단지 땅 용도 변경 건이 대표적이다. 박 전 시장의 아들은 4500여㎡의 제조

천편일률 지역 축제 차별화 노력 시급하다

엔데믹 시대를 맞아 전국에서 수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주제로 축제를 기획, 관광객 유치에 온 힘을 쏟는 중이다. 광주에서도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최근에는 '맥주 축제'에 치우쳐 있는데다, 이마저도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돼 시민들이나 관광객을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광주시 지방자치 단체 차원에서 기획된 맥주 축제는 5개에 달한다. 지난 28-29일 총장로 4-5가 일대에서 '총장길 맥' 축제가 열렸고, 29일에는 서구 양동 건여울 시장에서 '양동 건맥축제'가 개최됐다. 오는 8월9-12일에는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일대에서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최로 '비어페스트 광주'가 열릴 예정이다. 트렌드를 좇아 맥주 축제를 열 수 는 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 지역적 특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단조로운 축제 구성으로 아쉬움을 주고 있다.

마을별로 직접 키운 보리와 밀로 만든 수제맥주를 선보이는 군산의 '수제맥주 페스타'나 하이트 강원 공장에서 생산한 생맥주와 흥청군 내 수제 맥주를 선보이는 '흥청강 별빛음악 맥주 축제' 등이 지역성을 살린 맥주 축제를 인기를 모으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부대 행사 역시 가수나 DJ 초청 공연, 푸드코트 등 비슷비슷한 구성으로 이뤄져 전혀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수많은 축제 사이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전략을 바탕으로, 오직 광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는 게 필요하다. 같은 맥주축제라도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당정의 흥행에만 초점을 맞춰 안전지향적인, 유사한 축제를 남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람들은 한 번 실망한 축제 현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는다.

無等鼓

1971년 여름 광주 송산리 9호분이 긴장마로 침수 위기에 놓였다. 당국은 장마에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배수로 작업에 돌입했다. 무심코 배수로로 파던 인부의 삽날에 단단한 물체가 부딪혔다. 벽돌을 쌓아 만든 아치형 구조물의 입구였다. 백제시대와 동아시아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연 무령왕릉은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다. 무령왕릉은 일제 강점기에도 수난을 면했다. 공주 교보 교사였던 가루베 지은(軀部總監)이 20년 동안 송산리고굴에서 살살 파헤쳤음에도 장마와 문화재

남도성은 수차례 발굴조사를 거쳐 백제 한성 도읍기(기원전 18년~475년) 백제 최초 도성으로 자리매김했다. 화순 대곡리 유적 출토 청동유물(국보 143호)도 배수로 공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됐다. 문화재가 후호로 세상에 알려지기도 하지만 실상은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지평을 연 무령왕릉은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다. 무령왕릉은 일제 강점기에도 수난을 면했다. 공주 교보 교사였던 가루베 지은(軀部總監)이 20년 동안 송산리고굴에서 살살 파헤쳤음에도 장마와 문화재

장마와 문화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주간 程厚權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자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업무국 220-0551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FAX 222-0195) (FAX 222-0195)	
전남본부 220-068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